25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설명회'가 열렸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새누리당 김정록(비례), 민주통합당 김승남·우윤근, 통합진보당 김선동, 민주통합당 이윤석·주승용·황주홍·백군기(비례)·배기운, 새누리당 주영순(비례) 당선자, 박준영 도지사, 민주통합당 김성곤 당선자, 송대수 도의회 부의장, 민주통합당 김영록 당선자 등이 설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국비 확보에 여·야 따로 없다 힘 합쳐 전남 발전 앞장서자"

전남도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도정설명회

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내년도 전남도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제18대 총선에서는 이 지역 당선자들이 민주통합당 일색이었지만 제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12명(비례 포함), 새누리당 비례대표 3명, 통합진보당 2명 등 소속 정당이 다양해져 도정 추진에 더욱 많은 도움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민주통합당·새누리당·통합진보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도청 실·국·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도정설명회'를 가졌다. 전남도가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 의원들까지 초청해 도정설명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민주통합당 지역구의원인 김성곤(여수갑)·주승용(여수을)·배기운(나주·화순)·우윤근(광양·구례)·김승남(고흥·보성)·황주홍(장흥·강진·영암)·김영록(해남·완도·진도)·이윤석(무안·신안) 의원 등 8명과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의원이 참석했다.

또 비례대표로는 새누리당 주영순(전 목포상의 회장)·김정록(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의원과 민주통합당 백군기(전 3군사령관) 의원 등 3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호남고속철 무안국제공항 경유 ▲광주~완도고속도로 조기 건설 ▲F1 코리아그랑프리 지원 ▲J프로젝트 지원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등을 19대 국회에서 풀어야할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성곤 의원은 "전남지역에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탄생한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전남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도 "상임위도 골고루 배정해서 지역 발전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김선동 의원 등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비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배기운 의원은 전남도의 호남고속철(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방침에 대해 "KTX가 혁신도시 나주를 경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선동 의원은 의과대학을 목포대에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순천대 등 가능성 있는 대학들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홍석우 지경부장관 광주 방문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이 26~27일 마이스터고 운영실태 점검과 기업인 특강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광주자동화설비공고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광주 광산우체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다.

또 강운태 광주시장,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유희열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등과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홍 장관은 27일 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리는 금요조찬포럼에 초청돼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정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세계박람회 D-16

6500m 심해의 비밀 '해양베스트관' 공개

6500m 심해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이 궁금증을 풀어줄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이하 박람회) 해양베스트관이 25일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는 이날 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베스트관 제작발표회를 열고, 전시실을 첫 공개 했다.

해양베스트관은 전 세계 해양·연안 분야의 최고 과학기술·정책·노하우를 총 13개 우수사례(14개 기관)로 선정해 세계 유명 과학자들이 찾아낸 바다의 비밀을 소개한다.

전세계 해양 관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심해를 연구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해양을 관측하는 기기들의 실물을 보여준다. 영상을 통해 물 위에 떠 있는 관측기기 모형들이 작동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다.

또 심해 6500m를 직접 탐사한 일본의 유인잠수정 '신카이 6500'의 내부 구조 등을 보여주고, 심해 생물의 모습도 관람할 수 있다.

조직위 강현주 해양베스트관장은 "해양베스트관은 현존하는 해양 관련 연구, 프로젝트 중 최고의 것만을 모아놓은 명품 전시관"이라고 소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25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해양베스트관 제작발표회에서 관람객들이 박제된 대형 바다거북을 살펴보고 있다.

승용차 진입 전면통제·바가지요금 차단

정부·전남도, 교통·숙박·식품 종합대책 수립

정부와 전남도 등이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종합 교통·숙박대책을 마련하고,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지난 2월 박람회 관람객 수요조사 결과, 박람회 기간 총 1082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통수단으로는 3명 중 2명이 승용차(60.9%)를 이용하고 버스(21.1%), 철도(15.5%), 항공(1.6%), 해운(0.9%) 순이었다. 관람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기간은 석가탄신일 연휴기간(5월 26일~28일)으로 하루 32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람회 조직위, 경찰청, 해양경찰청, 전남도, 여수시 등과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승용차의 박람회장 인근지역 및 주변도로 진입을 전면통제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30분 만에 박람회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으로 승용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말 철도(9회), 고속버스(28회), 시외버스(45회), 항공기(1편) 증회했고 연안여객선 8개 항로를 신설해 수송력도 높였다.

정부는 또 25일 박람회 정부지원 실무위원회를 열어 여수지역 숙박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합동단속반 운영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박람회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도한 요금인상, 바가지요금, 예약거절 등을 적발하기 위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3~16일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 먹는 물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을 초과한 여수지역 8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한편 조직위는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지정 숙박업소를 연계해 방문객에게 숙박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텐트촌, 캠핑파크, 한옥체험마을 등 임시·체험형 숙박시설도 공급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

인천공항~서울역 철도요금 30% 할인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 인천공항~서울역 공항철도 이용요금이 1만3800원에서 9700원으로 30% 할인된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5일 "코레일 공항철도와 요금할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박람회 입장권을 제시하거나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expo2012.kr)에서 할인 내용이 명기된 '안내 페이지'를 출력해 제시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여수시, 도쿄에 박람회 홍보전시관 개관

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일본 관람객 유치에 나섰다.

여수시는 25일 "더욱 많은 일본 관람객이 박람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에 박람회 홍보전시관을 개관하고 1주일 간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충석 시장과 여수시 대표단, 여수시립국악단은 지난 24일 이 홍보전시관에서 신각수 주일대사를 비롯해 하오 이치로 일본경제산업성 심의관, 박재세 재일한국인연합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서 김 시장은 "여수박람회에 대한 일본 국민들과 재일한국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재세 회장 등 6명을 여수홍보대사로 임명해 위촉패를 수여했고, 일본지역 주요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수시립국악단은 전통 음악과 한국무용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한편 여수시는 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청소년 10명을 오는 7월말 개최되는 여수국제청소년축제에 특별 초대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항고혈압 제제와 항고지혈증 제제의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
(수축기 혈압(SBP)130mmHg/이완기 혈압(DBP) 80mmHg이상,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Cholesterol) 100mg/dL이상)
대상자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2. 참여 기간
- 본 임상시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에 적합한 경우 약 12~14주간 총 4~5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면 8주 동안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제공되며, 정기적인 검진과 임상시험과 관련된 각종 혈액검사, 뇨검사, 심전도검사 및 소정의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시기관 : 광주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 문 의 처 : 010-4095-1850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음향 이득효과가 큽니다.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반영구적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